연말·연초 개각론 솔솔… 李 대통령 단행할까

‘분위기 쇄신’ 공감대 확산

현 경제팀 물갈이 여론 전반적 개각론으로 번져

靑 “앞서나간 얘기” 일축 속 일부 조직개편 검토

정치권을 중심으로 ‘연말 개각론’이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연말이나 연초에 개각을 단행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발(發) 금융위기에 대한 초동대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현 경제팀을 물갈이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여론이 전반적인 개각론으로 번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청와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개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또한, 청와대 일각에서도 ‘분위기 반전’을 위한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경제팀 물갈이 및 연말 개각론과 관련, “너무나 앞서 나간 얘기”라면서 “바뀐 게 아무 것도 없으며, 현재로서는 새로 진행되는 상황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언론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당에선 민심을 수렴하는 창구인 만큼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현재로선 관련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게 없다는 것이 명확한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여권 핵심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개각 논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경제위기가 진정되고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상황변화에 따라 개각 문제도 자연스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경제팀의 임무가 어느 정도 끝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연말 연초가 되면 정치일정상 개각이 단행되거나 최소한 개각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즉, 금융위기라는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책임 여부를 따지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이처럼 연말 연초 개각론이 자꾸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분위기 반전과 국정쇄신을 위한 차원도 있지만 새 정부가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내년 1년 뿐이라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다.

대대적인 인적쇄신이나 친정체제 구축을 통해 제2의 집권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특히, 임기 초 ‘광우병 파동’과 최근의 금융위기 대처 과정에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만큼 기능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 대변인도 “다만 전체적으로 미세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있는 것 같다”며 “업무의 중복도 좀 있고, 꼭 필요한 부분이 합쳐진 부분도 있어 그와 관련해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비상 청와대·비상 정부 각오로…”

李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주재

“공직자 솔선수범” 주문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새 정부의 교육·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위원들과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국제 금융위기와 관련, “지금은 비상한 시기인 만큼 국회만 비상국회를 요구할 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도 비상 청(靑), 비상 정부라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국민이 겪는 아픔과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공직자들이 국민 편에 서서 힘든 짐을 먼저 짊어지는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고 청와대 수석들이 하이브리드차로 바꿔 타고 다니는 일도 했으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특히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국민들의 체감과 괴리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철저히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해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면 오히려 큰 기회가 올 수 있는 만큼 모두 비상한 각오로 난국 돌파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의 교육·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돈희 부의장, 강신영 전남대 공과대학장 등 자문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확대 개편된 것으로, 앞으로 매달 회의를 갖고 교육·인재 정책 및 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이 대통령에게 ‘국가 교육과학기술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보고한 뒤 “앞으로 국가는 글로벌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창의 인재를 키워내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 지도부 “경제팀 교체 불가” 정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론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강만수 사퇴 불가’로 입장을 정리했다.

차명진 대변인은 2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중진 연석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팀 경질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우선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지금 불이 나고 있는데 불부터 꺼야지 그 책임을 들고 나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며 강 장관 살리기에 시동을 걸었다.

이어서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한나라당 최고위원들과 중진의원들은 한결같이 강 장관의 퇴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규제철폐가 관건인 데 경제수장을 교체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현실론’에서부터 “현재 경제수장에 대한 공격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공격”이라는 강성 발언까지 제기됐다는 것.

차 대변인은 “대통령이 의지를 분명히 밝혀 시중에 있는 갑론을박을 잠재웠으면 좋겠다는 언급도 있었고 지금 위기상황을 극복할 때까지 현재(경제팀) 진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한나라당 지도부가 한결같이 ‘강만수 힘 실어주기’에 나서면서 당분간 여당 내에서 강만수 퇴진론은 잠잠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당인 한나라당마저 강만수 장관과 같은 배를 타게 되면서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할 경우 쏟아질 비난 여론도 피하기는 힘들게 됐다. 또 아직도 당 일각에서는 현 경제팀을 경질해야 한다는 교체론이 나오고 있어 향후 당내 분란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당정청, 경제위기 신속 대응체계 구축키로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모임과 시스템을 풀 가동해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전광우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김동수 1차관, 청와대 김동연 경제금융비서관 등은 29일 총리공관에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현재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하면서도 장기전 태세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다양한 논의구조와 대책시스템을 가동해 당정청이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어 “당정청이 수시로 여러 단위의 모임을 갖기로 했다”며 “신속대응체제를 갖추되, 너무 단기적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과 관련, “우리 경제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외여건이 나빠지면 수출 위축이 예상된다”며 “결국 내수 부문에서 경제를 떠받쳐주는 내수 지지정책이 필요하며 그런 차원에서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총리실 김왕기 공보실장은 “당정청이 경제위기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며 “당정청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에 어떤 부분을 담을까를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결론 내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www.kimyoung.co.kr
대학편입 김영에 맡겨라!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한의대편입/ 의약대편입
매일 공개설명회 10시/2시/ 4시/ 6시
★ 2009 편입대비 강좌안내 ▶ 종합영문법, 어휘이론, 독해이론, 논리완성, 기초입문 수험생을 위한 M T, 자기점검을 위한 주간 TEST/ LEVEL TEST/ 월간 TEST
인생역전 개강 11월 3일 첫진도 주/야간반 모집
상위권 대학편입 전문학원 김영 대학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새롬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361-8111
북구점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급 교수진과 36개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1月 3日 (주,야) 처음시작하신분을 위한 기초이론 강좌
주부반, 성인반 국비무료 재직자반
연회원 등록시 선착순 50명 수강료 특별할인
국비무료 고용보험재직자 교육비환급 선착순 60명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체인)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잘하는 학원1위 ●선배합격자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1위
합격률1위 전국수석합격 새롬행정고시학원
서구점 ☎361-8111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268-8111 ▶확장이전. 오치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롬빌딩 4층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 44년 전통 합격률 1위
● 본원출신 전국수석 (송은영님 평균 96.7점)
"2009년 2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기초과정 → 기본이론 → 심화이론 → 핵심요약 최종문제풀이
개강_11월 3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년회원 수강 등록시" 수강료 20% 할인혜택 (50명) 주부반 · 성인반 (주간반,야간반)
광주고시학원
직장인을 위한 고용보험 환급과정 국비무료 개강일정 마감
본원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F
첨단점 ☎971-0002 (구)베이트 첨단점 옆 광주은행 4F

=전통47년!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명교수진의 환상의 강좌(직접확인요)=
7·9급 공무원 합격 대비
◉직종 행교세관법검찰출교보보복소기 정육무세원찰공관정건호지방술
• 30~40대 주부특별반모집 •
-합격설명회, 매일09~19시까지-
'09년 시험은 지금부터
●대폭모집 2만여명 : 9급 국가직 4월 중순, 7·9급 지방직 5월하순 7급 국가직 7. 8월 시행
※내년부터 : 연령상한 없앤다 (세무인정,신분보장)
개강 11월 1일(주·야간반 모집) (현재예약접수중)
합격 회원 모집
※ 6개월 : 90만원(교재17만원포함)
※ 주·야간반+기초(英·國)무료특강
※수강료가 저렴. 필승합격 확신함.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